

유튜브, 시로 일부 영상 손봐 창작자 동의 없이 선명도 높이는 실험

유튜브가 최근 창작자 동의 없이 일부 영상에 인공지능(AI) 보정 기능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한 음악 유튜버는 최근 자신의 영상에서 "머리카락이 이상해 보이고, 얼굴에 화장을 한 듯 낯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가 비밀리에 AI를 이용해 영상의 선명도와 노이즈를 자동 조정하고 있었다.

유튜브는 그간의 소문을 인정하며, 일부 샷츠 영상에 대해 머신러닝 기술로 흐림과 노이즈를 줄이고 선명도를 높이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르네 리치 유튜브 에디토리얼 크리에이터 담당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보정 기능과 유사하다"며 "창작자·시청자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줄지 여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 "현실과의 관계 흔들릴 수 있어"

피츠버그대학 사무엘 울리 교수는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창작자 동의 없이

공개 콘텐츠를 수정한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가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로 AI 사용을 희석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노르웨이 베르겐대학 질 워커 랫버그 교수는 "필름 카메라는 빛을 받은 그대로 현실을 담지만, AI가 개입하면 현실과의 연결 고리가 약해진다"고 경고했다.

■ AI 개입, 새로운 신뢰 문제 제기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달 사진을 시로 보정한 사실이 알려지고, 구글 픽셀폰은 '베스트 테이크' 기능으로 여러 장의 얼굴 표정을 합성하는 등 사진·영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지난 3월 넷플릭스에서 AI 리마스터된 1980년대 시트콤은 "기괴하다"는 혹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구글은 픽셀10에 AI 편집 사실을 알려주는 '콘텐츠 크리덴셜' 워터마크를 도입했지만, 유튜브의 무통보 영상 수정은 온라인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울리 교수는 "사람들이 이미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창작자 몰래 콘텐츠를 수정한다면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TV+ 월 구독료 12.99달러로 인상

애플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의 월 구독료를 12.99달러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부터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며, 기존 구독자에게는 다음 결제일로부터 30일 후 반영된다. 다만 연간 구독료는 변동이 없다. 신규 가입자는 7일 무료 체험 이후 월 12.99달러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인상은 2023년 월 6.99달러에서 9.99달러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2022년에도 4.99달러에서 6.99달러로 인상된 바 있어, 애플TV+는 3년 연속 가격이 오르게 됐다.

애플은 애플TV+의 이용자 수나 시청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수가

약 4,5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연간 1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애플TV+ 이용을 허용하며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극장 개봉작 'F1: 더 무비'로 자사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애플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올해 초 넷플릭스와 NBC유니버설의 피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각각 요금을 올렸다. 업계 전반적으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와 투자 회수 목적이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무료견적 및 정확한 진단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모든 것 해결해 드립니다



철대문 제작/설치 및 펜스 설치
녹슬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
플러밍, 페인트, 타일, 에어컨
LED Light, Slipfence
식당, 하우스, 화장실 리모델링, 캐비닛
Metal Door, 콘크리트, 방범창살, 핸드레일

SK Construction 건축·설비 **펜스/플러밍/리모델링**
909.969.3669

**처방 없이 예약 없이
워크인 환영**

독감 주사

코비드/RSV

대상포진

페렴 주사

파상풍 주사

*** 모든 백신 접종**

행복한 약국, 웃음이 있는 약국

정약국



Jung Pharmacy

각종 보험 환영(메디케어/메디케이드/HMO/PPO)



정은혜 약학 박사
(Grace Jung)

건강 상담/혈압 당뇨 측정/예방 접종/처방약 조제/무료 배달 서비스/한국약 판매/비타민/건강 보조제

정약국

714.752.6027

Open hours: 월-금 9am-6pm / 토 9am-2pm | Fax: 714.676.5508
카카오톡 ID: jungrx | 6771 Beach Blvd. Ste E, Buena Park, CA 90621



Commonwealth Ave
Western Ave
Beach Blvd
Stanton Ave
Orangethrope Ave
데니스 91
소스몰 맞은편, 명인만두 옆